

# Ryu, 한국인 최초 빅리그 PS 선발승 쏜다

## 디비전시리즈 3선발 확정... 7일 애틀랜타전 출격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 3차전 선발 투수로 왼손 류현진(26)을 공식 예고했다. 다저스 구단은 매팅리 감독이 7~8일(이하 한국시간) 휴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디비전시리즈 3~4차전 선발로 류현진, 리키 놀라스코를 차례로 지명했다고 3일 발표했다.

다저스는 4~5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터너필드에서 열리는 1~2차전 선발로 클레이튼 커쇼, 잭 그레인 킨을 내보낸다. 당초 다저스는 1승 2패로 밀릴 경우 1차전에 나서는 커쇼를 사할 만에 앞당겨 4차전 마운드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매팅리 감독의 방안에 동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커쇼가 1차전에서 일찍 무너지면 놀라스코가 롱 맨으로 등

판할 수도 있다. 올 시즌 애틀랜타와 정규리그 2경기에 등판해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한 류현진은 홈에서 등판한 총 1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32를 남겨 원정(3.69)보다 안정적인 투구를 선사했다. 류현진이 디비전시리즈 마운드에 서면 김병현, 최희섭, 박찬호,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에 이어 역대 한국인 빅리그 5번째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을 경험한다.

김병현, 박찬호가 구원으로 등판한 것과 달리 류현진은 선발로 출격하는 첫 한국인 메이저리거다. 메이저리그 가을 잔치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인 투수는 아직 없어 류현진이 추신수처럼 최초라는 이정표를 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메이저리그 가을 잔치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인 투수는 아직 없어 류현진이 추신수처럼 최초라는 이정표를 세울지 관심이 쏠린다. 추신수는 2-6 패배로 끝난 2일 퍼츠버그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포스트시즌 한국인 첫

선발 출전, 홈런, 타점, 출루, 득점 등 각종 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팀 전체 연봉 순위에서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인 탬파베이 레이스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4-0으로 꺾고 미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첫 관문인 디비전시리즈(5전 3승제)에 진출했다. 와일드카드도 2년만에 디비전시리즈 무대를 밟은 탬파베이는 5일 오전 4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리그 동부지구 챔피언 보스턴 레드삭스와 디비전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 클럽에서 열린 2013 프레지던츠컵 연습라운드 15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미국 대표팀과 세계 연합팀이 맞붙는 골프 단체 대항전인 이 대회는 4일부터 열린다. /연합뉴스

## 호랑이 9회에 또 역전패 올 시즌 8위 예약?

### 두산 최종전서 6대7패

‘호랑이 군단’이 두산과의 ‘단군매치’에서 역전패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3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16차전에서 마무리 김진우의 난조로 6-7 재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올 시즌 두산과의 전적은 3승1무12패로 마감했다. 1회부터 9점을 점수를 주고 받으며 양팀의 선발투수가 조기 강판 됐다. KIA 선발로 등판한 송은범이 첫 타자 이종욱과의 승부에서부터 볼넷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어진 허경민의 안타와 도루로 1사 2·2루, 오재일과 홍성흔의 연속 안타로 2점을 내줬다. 이원석의 희생타까지 나오면서 송은범이 1회부터 3실점을 했다. 두산 니퍼트도 신인들의 패기에 힘겨운 1회를 보냈다. 첫 타자 신중길을 삼진으로 잡아낸 니퍼트가 첫 선발출전이었던 신인 김광연에게 우전안타를 허용 한 뒤 볼넷 3개를 내주며 흔들렸다. 2사 만루에서는 신인 이흥구의 한방에 넘어갔다. 8번 타자로 나선 KIA 포수 이흥구는 2사 만루에서 니퍼트의 초구를 공략해 좌측 담장 넘어가는 만루포를 만들었다. 경기는 순식간에 6-3으로

뒤집혔다. 40분이 넘는 초반 기선 싸움이 끝난 뒤 KIA와 두산은 각각 소사와 헨킨스로 투수를 바꾸며 마운드를 재 정비했다. 소사는 2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실점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6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두산을 막아냈다. 소사는 6-4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며 10승을 눈앞에 뒀지만 마지막이 문제였다. 팔통증으로 등판을 쉬었던 윤석민이 9월22일 이후 모처럼의 등판에 나서 7·8회를 안타 하나로 막으며 소사의 10승을 이어주는 듯했다. 하지만 9회 구원 등판에 나선 김진우가 1사에서 민병현에게 2루타를 허용한 뒤 볼넷과 안타로 만루의 위기에 몰렸다. 이어 점수빈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6-7로 전세가 뒤집혔다. KIA는 9회말 2사에서 대타 차일목과 역시 대타 김주형의 연속안타로 2사 1·3루의 마지막 기회를 잡았지만 황정일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시즌 73번째 패를 기록했다. KIA는 4일 안방에서 넥센을 상대로 올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한편 삼성은 지난 3일 롯데를 상대로 9-2 승리를 거두면서 3년 연속 정규시즌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챔스리그서 맹활약 FC서울, 한국 프로축구 자존심 지켰다

### 레버쿠젠 승리 기여 데뷔골은 다음에...



손흥민(21·레버쿠젠)이 유럽 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 팀의 첫 승에 힘을 보탤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와의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2차전 홈경기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 후반 23분 로비 크루스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달 18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의 1차전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도움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이날 선제골의 발판이 되는 프리킥을 유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전반 종료 직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공격을 펼치던 손흥민은 미켈 곤살레스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따냈다. 이를 썩이 차올렸고, 헤딩슛을 차 단단한 지문 톨레스는 재차 공을 따내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레버쿠젠은 후반 추가시간 엔스 헤

레버쿠젠 손흥민이 3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와의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2차전 홈경기에서 상대 선수들의 견제를 따돌리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리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승점 3을 기록한 레버쿠젠은 이날 1-1로 무승부를 거둔 맨유,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이상 승점 4)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한편 B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2골씩 폭발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앙헬 마리아의 활약을 앞세워 코펜하겐(덴마크)을 4-0으로 완파, 조 1위(승점 6)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 하대성·김진규 골·골... 아시아 챔스리그 결승행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FC서울이 2013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서울은 3일(한국시간) 이란 테헤란의 알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 2차전에서 하대성의 선제골과 김진규의 페널티킥 동점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8강에서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준결승에 오른 서울은 1·2차전 합계 4-2로 에스테고랄을 누르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포항(2009년·우승), 성남(2010년·우승), 전북(2011년·준우승), 울산(2012년·우승)에 이어 K리그 클럽이 5년 연속으로 결승전에 오르는 기록도 썼다. 서울은 전신인 안양LG 시절 2002년 아시안클럽 챔피언십(AC 챔

피언스리그 전신)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2002-2003 시즌부터 AFC 챔피언스리그로 확대 개편되고 서울로 연고 이전을 하고서 결승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에도 안양LG는 알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4강전에서 에스테고랄을 2-1로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수원 삼성과의 K리그 클럽간 맞대결에서 승부차기가 치러지는 접전 끝에 패배했다. /연합뉴스

## 광주 FC, 경찰 상대 창단 첫 3연승 도전

### 6일 홈서 K리그 챌린지 27R

광주 FC가 창단 첫 3연승을 겨냥한다. 광주 FC가 6일 오후 2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경찰축구를 상대로 K리그 챌린지 2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창단 3년차의 광주는 그동안 7경기 무패행진 기록도 작성했지만 3연승은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안방에서 ‘위기의 선두’ 경합을 상대로 3연승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광주가 2연승과 함께 상승세에 올

랐지만 경찰은 핵심 멤버들이 대거 전역하면서 전력누수가 많다. 광주로서는 해발만 한 승부다. 주전 수비수 임하람이 경교 누적으로 벤치를 지켜야 하는 게 아쉽지만 정우인과 유종현이 든든히 버티고 있다. 총주전에서 부상을 당한 핵심 미드필더 김은선도 출장을 장담할 순 없지만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원에서는 여름과 이광진이 뜨겁다. 여름은 최근 숨겨져 있던 공격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알토란 같은 득점

을 안겨줬다. 서울에서 임대해 온 이광진은 탄탄한 기본기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안방에서 2골1도움을 기록하며 광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면 경찰은 선수들의 전역과 함께 전력의 반토막이 났다. 김영후, 양동현, 배기중 등의 핵심 공격라인과 염기훈, 이치준 등 찬스 메이커가 빠져나가면서 최전방과 양 측면의 무게감이 떨어졌다. 팀의 주전으로 자리를 굳힌 박희성이 3연승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두산 타자들, 양의지에게 “광주왔네, 네 고향”

### 덕아웃 말·말·말

▲우리로 양현종 10승해야 하는데 4일 넥센과 최종전을 갖는 선동열 감독, 취재진이 2위 싸움을 위해 넥센이 총력전을 할 것이라고 하자, KIA는 4일 양현종이 선발로 나선다. ▲갔다니 커피밖에 없네=두산 김진욱 감독을 만나기 위해 원정 관객 자살에 다녀온 선동열 감독, 사람은 없고 커피만 있더라면서, 김진욱 감독은 소문난 커피 마니아다. ▲아 공이 안 보인다. 어쩌나=타격 훈련을 하던 홍성흔, 낮에 공을 치러니 보이지 않는다면서, 3일 KIA와 두산과의 경기는 공중과 중계 사정으로 오후 2시 경기로 치러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왔네, 네 고향=두산 타자들, 진흥고 출신의 양의지가 배팅 게이지에서 장타를 연달아 날리자, 올 시즌 무등경기장에서 타율 0.412, 홈런 3개를 기록하는 등 고향에서 강세를 보였던 양의지는 3일 경기에서는 3타석 연속 삼진에 그쳤다. ▲영당이 허리에 있어요=윤완주, 소사가 지나가자, 소사는 유난히 다리가 길다. ▲아=신인선수 김광연, 2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다는 얘기를 듣자 긴장된다. ▲제가 더 낫죠=나지만, 선동열 감독이 이종환과 몸매가 비슷한 것 같다고 하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9월 MVP KIA타이거즈 외야수 나지완이 광주·전남 기사단이 선정하고, 밝은안과 21병원이 시상하는 9월 MVP에 선정됐다. 나지완은 9월 한달 89타수 24안타(타율 0.270) 4홈런 16타점 13득점을 기록했다. 나지완은 시상금은 100만원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